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推移分析和 對策方向

張 時 榮

〈韓國銀行調查 第2部〉

I. 머리말

우리나라의 物價暴騰은 1945년 日帝로부터 解放 이후 1958~59년간의 짧은 物價安定期를 除外하고는 韓國經濟에 있어 慢性的인 현상으로서 그동안 政府의 꾸준한 安定化 努力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이제 企業, 家計 및 政府를 포함한 經濟의 모든 部門에 걸쳐 하나의 構造的 病疾이 되고 말았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 物價는 都賣物價基準 약 37,825배 上昇했으며 이를 年平均으로 換算하면 年 35%의 上昇으로서 同期間中 最低 -2.6%에서 最高 544%에 달했다.

이러한 持續的인 物價騰貴는 우리 經濟의 産業化 進展過程에서 經濟·社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原因과 樣態를 달리하면서 經濟의 恒久的인 基盤構築을 弱화시켜 왔다.

解放 이후 物價上昇過程을 政治, 社會 및 經濟的 與件變化에 따라 몇 段階로 細分하여 보면 첫째 45년부터 6.25 動亂 終了時까지 9년간은 日本資本의 撤收로 인한 停滯狀態에서 日帝下에 抑壓되었던 消費需要의 顯在化, 日本, 中國等地로부터 人口의 大量流入과 뒤이은 6.25 動亂에 의한 生産施設의 破壞로 인한 物量不足狀態에 通貨膨脹이 持續되어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는 54년부터 61년까지 經濟再建期로서 UNKRA, F·A·O, ICA 등의 外援을 통한 供給擴大와 通貨緊縮으로 物價上昇은 前期에 비해

顯著히 鈍化되었다.

세째는 62년부터 72년까지로서 國際原資材 價格安定과 高度成長에 따른 産業生産과 輸入物量의 擴大가 併行됨으로써 우리나라 物價는 62~64년을 除外하고 대체로 10%線의 安定을 보였다.

다음은 73년부터 80년까지로 그동안 輸出主導型 高度成長過程에서 발생한 副作用이 차츰 累積되어 海外 「인플레」의 狀況에 따라 國內物價가 크게 左右되는 對外依存型體制가 造成되었으며 從來와는 달리 賃金 「코스트」에 의한 物價上昇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時點에서 物價安定을 위한 根本的 對策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統一的 有機體로서의 國民經濟가 「中進의 挫折」에 빠질 危機에 直面해 있다는 사실을 銘心하고 보다 巨視的 次元에서 우리나라 物價樣態를 分析하고 이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推移分析

1. 激動期の 「하이퍼 인플레이션」

(1945. 8 ~ 1953년)

日帝의 戰時 統制政策에 의해 強力히 抑制되어 온 우리나라 物價는 解放後부터 6.25 動亂 終了時까지 9년 동안 서울 都賣物價 基準으로 약 590배 著騰하였는데 이는 年平均 156%에 달하는 것이었다.

1945년 8월부터 48년 8월 政府樹立까지 3년간 서울 都賣物價는 약 10배의 急騰勢를 보였다. 이는 日本資本에 의해 運營되어 왔던 우리나라 경제가 解放과 더불어 日本資本의 撤收 및 南北分斷이라는 與件의 變化로 거의 완전히 解體되어 産業生産이 급격히 減少된 反面 日帝의 강력한 統制經濟下에서 억제되었던 消費需要의 顯在化와 年平均 104.9%에 달하는 通貨增加로 生必品을 중심으로 物量不足 현상이 深化된데다 이에 더하여 日本, 北韓等地로부터의 人口流入과 政治·社會的 不安으로 因한 心理的 要因이 加勢된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1946년 南韓의 製造業體數는 44년에 비해 43% 감소했으며 製造業 生産者數는 59.4%나 줄어들어 46년 이후 주요 商品의 生産이 다소 增加했음에도 불구하고 48년 南韓 製造業의 總生産額은 1940년에 비해 약 5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이다. 反面 南韓의 人口는 北韓으로부터의 越南民과 日本 및 其他 外國으로부터의 歸還入國者들로 약 210萬名이 增加하여 物資不足에 의한 超過需要 상태를 더욱 刺戟하였고 「인플레이」의 昂進을 加速화시켰다.

1948년 8월 政府樹立과 더불어 社會的 不安이 다소 鎮靜化되었고 財政赤字의 累增으로 인한 通貨膨脹이 다소 둔화되어 48년 중에는 通貨增加率이 前年末比 42.9%의 增加에 그치게 됨에 따라 物價上昇率도 30.1%까지 끌어 내릴 수 있었다. 또한 48년 糧穀買入法을 制定·實施하는 한편 糧穀의 收穫時에 一部를 補償物資로 代償支給함으로써 糧穀收集資金의 放出을 통한 通貨膨脹을 억제하고자 努力하였다.

政府는 50년 들어 財政 및 金融의 健全化, 貨幣發行制의 堅持 등을 주로 한 經濟安定 15原則

解放後의 人口增加要因

<表-1> (1946. 1 ~ 1948. 12) (單位: 人)

入 國		出 國	
越南者數	464,548	日本人出國	888,914
海外歸還者數	2,529,914	中國人 其他出國	2,325
計	2,994,462	計	891,309
		純 增 加	2,103,153

資料: 經濟年鑑 1949년, 韓國銀行

을 制定·實施하는 등 物價安定에 注力하여 우리 經濟의 安定化 機微가 造成되었으나 6. 25 動亂의 勃發로 또다시 激甚한 「인플레이」의 渦中에 들어 가게 되었다.

6. 25 動亂 期間中 우리가 받은 諸般施設의 被害額은 약 30億弗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 産業施設의 被害는 354百萬弗로서 生産活動이 거의 中斷狀態에 빠지게 되어 우리 경제는 극심한 物資不足 상태에 直面하였다.

反面 戰爭物資 調達을 위한 막대한 財政支出과 「유엔」軍 貸與金 支給 등에 主導된 通貨增加는 1950년 133.9%, 1951년 158.0% 등 急騰勢를 持續하여 超過需要壓力을 加重시킴으로써 都賣物價는 1950년 6월에서 1951년 말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6.5배의 上昇을 보였다.

이와 같은 物價 暴騰勢를 鎮靜시키고자 政府는 不足物資의 緊急調達을 目的으로 消費財援助를 主軸으로 한 外援導入에 注力하였다.

動亂中 外援의 主宗을 이룬 것은 「유엔」의 緊急救護援助인 CRIK 援助였다.

導入實績은 51년부터 53년까지 都合 388,766千弗에 달하였는데 그 중 穀物을 포함한 食料品이 全導入額의 39.7%에 해당하는 154,476千弗이었고 纖維類가 27.2%인 105,734千弗, 農業用品이 43,369千弗로 11.2%를 차지하여 食料品을 비롯한 生必品の 極심한 不足狀態 解消와 物價抑制에 크게 寄與하였다.

52~53년 중에 戰爭이 非武裝地帶를 따라 停滯되면서 生産은 다시 增加하여 49년 수준을 凌

<表-2> 通貨量 및 物價變動率 推移 (比前年末: %)

年 度	通 貨 量		物 價 上 昇 率 (%)	
	百 萬 圓	增加率 (%)	都 賣 物 價	小 賣 物 價
1945	11	-	-	-
46	25	127.3	543.7	332.1
47	49	96.0	90.3	104.2
48	70	42.9	30.1	18.6
49	121	72.9	56.5	54.6
50	283	133.9	186.7	221.0
51	730	158.0	212.7	221.4
52	1,433	96.3	102.0	108.8
53	3,032	111.6	26.5	64.1

資料: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駕하였고 1953년 2월 緊急通貨措置를 斷行하고 이의 補完措置로서 金融統制를 實施한 結果 市中의 浮動購買力은 어느 程度 吸收되었으며 外貨貨出의 增加로 輸入이 增大되면서 物價는 비로소 그 上昇勢가 둔화되었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激動期中 高度의 「인플레이션」은 政治·社會的 混亂에 따른 供給能力의 絶對不足과 通貨의 急膨脹에 의한 慢性的인 超過需要 現象에 基因되었다고 할 수 있다. 通貨와 物價와의 關係를 <表-2>에서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激動期中 우리나라 物價의 暴騰相과 通貨의 急膨脹은 밀접한 關係가 있어 通貨增加가 곧바로 物價上昇에 크게 作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再建期の 物價變動 (1954~61년)

1953년 7월 休戰의 成立과 동시에 戰爭으로 破壞된 生産施設의 復舊와 累增된 「인플레이션」의 收拾에 總力이 傾注되었다.

戰時에 100%를 上廻하던 年間 通貨膨脹은 1953~61년간의 戰後 再建期에는 많이 둔화되었는데 이러한 둔화는 UN 및 美國의 막대한 無償援助 「달러」의 賣却代金인 對充資金 形式으로 “원” 貨를 吸收했기 때문이었다.

1954~60년 中 外國援助資金은 18億 8千9百萬 「달러」로서 이는 우리나라 總收入의 70%를 占했는데 「프로젝트」 援助를 除外하곤 食糧 및 主要 工業原資材를 輸入하기 위해 거의 모두를 民間貿易業者나 事業體에 賣却했는데 이 賣却

에 의한 對充資金은 同期間의 年平均 中央政府 總歲入額의 약 43%에 달했다.

戰後 再建期の 對充資金收入은 戰後 復興計劃의 財源調達을 위한 政府의 막대한 豫算赤字를 防止함은 물론, 通貨安定에 중요한 役割을 하였고 外國援助資金에 의한 輸入은 國內의 食糧과 工業原資材와 資本財의 供給不足을 補充함으로써 物價上昇率을 차츰 둔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 1955년 8월 換率이 500圓對 1美弗로 變更되기까지 解放 이후 10년간 換率引上率이 3,333倍에 달하여 物價激騰의 主要因으로 作用함에 따라 財政·金融面의 緊縮을 一層 強化하고 換率의 安定維持에 注力한 結果 60년 2월 650圓對 1美弗로 引上되기 前까지 4년반 동안 安定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與件의 造成下에 195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財政安定計劃을 樹立하여 年間 通貨膨脹을 20% 수준으로 過剩 通貨增加를 抑制하려는 試圖를 하였다. 58년과 59년에 緊縮 通貨政策이 점차 緩和되었지만 이같은 通貨緊縮과 57·58년 두 해에 걸친 農作物 豊作에 힘입어 57년 都賣物價 上昇率은 우리나라 史上 처음 「마이너스」 0.7%를 記錄하였고 58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2.6%를 나타내어 짧으나마 우리 經濟는 物價安定을 經驗하였다.

2년 동안 下落勢를 유지하던 都賣物價는 59년 下半期에는 美國의 對外援助 政策의 轉換에 따른 援助의 激減과 同年 6월 中 對日通商中斷 措置 및 「사라」호 颱風의 被害로 인한 穀物作況 부진으로 다시 上昇하기 시작하여 모처럼 이룩

<表-3> 外國援助導入總括 (單位:千弗)

年度	合計	PL480	ICA	CRIK	UNKRA
1954	153,925	-	82,437	50,191	21,297
55	236,707	-	205,815	8,711	22,181
56	326,705	32,955	271,049	331	22,370
57	382,892	45,522	323,267	-	14,103
58	321,272	47,896	265,629	-	7,747
59	222,204	11,436	208,297	-	2,471
60	245,394	19,913	225,237	-	244
計	1,889,099	157,722	1,581,731	59,233	90,413

資料: 經濟統計年報 1963년, 韓國銀行

<表-4> 對美換率變遷推移¹⁾

適用年月日	美貨1弗當換算率		對充資金換率	備考
	圓	원		
1953. 2. 14	60	(6)	180圓	通貨改革(100對1의 平價切下)
1953. 12. 15	180	(18)	180圓	
1955. 8. 15	500	(50)	500圓	
1960. 2. 23	650	(65)	650圓	
1961. 1. 1	1,000	(100)	1,000圓	
1961. 2. 2	1,300	(130)	1,300圓	

註: 1) 公定換率

資料: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表-5〉 主要經濟指標의 增減率 推移 (比前年:%)

年度	通貨量	GNP 成長率	産業 生産指數	物價上昇率 ¹⁾	
				都賣物價	서울消費 者物價
1953	111.6	-	-	26.5	64.1
54	91.6	5.5	-	51.0	48.0
55	61.0	5.4	19.4	43.0	26.9
56	29.3	0.4	22.2	37.9	40.4
57	36.6	7.7	15.4	-0.7	-2.2
58	32.4	5.2	9.7	-2.6	3.4
59	21.1	3.9	14.9	9.5	8.0
60	5.3	1.9	9.1	7.1	5.3
61	40.4	4.8	5.7	14.6	3.7

註: 1) 年末基準

資料: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한 安定基調는 크게 威脅받게 되었다.

援助減縮을 補填하기 위해 自由輸入을 增加시켰지만 輸入의 總規模는 前年에 비해 19.7% 감소한 303,807千弗로 축소되어 供給不足으로 인한 物價上昇이 야기되었다. 또한 1960年 中에는 4·19 등 政治·社會的 不安의 餘波가 一時에 經濟部門에 까지 波及됨으로써 經濟外的 要因에 의한 物價上昇이 1961年 5월 物價凍結措置까지 계속되었다.

3. 1962 - 72년 中의 「인플레이」

1962년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되면서 國內貯蓄이 부족한 가운데 意慾의인 成長政策을 追求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規模의 開發投資財源이 주로 中央銀行의 借入에 의해 充當된 데다가 1960년 이후 外國援助도 점차 줄어들어 外換不足으로 인하여 輸入物量의 供給이 부진하고 國內生産施設의 未備로 生産增大가 低調하여 過剩流動性으로 인한 超過需要壓力은 곧 物價上昇要因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962년의 米穀凶作과 1963년 夏穀의 減産으로 인한 穀物價格騰貴가 加勢하여 1962-64년간의 年平均 都賣物價上昇率은 21.5%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第1次經濟開發計劃의 後半期인 1964년부터는 從來의 成長優先에서 安定的 成長으로의 政策轉換을 시도하여 同計劃을 修正하기에 이르렀고 一時 中斷되었던 財政安定計劃을 復活하여 強力한 緊縮政策을 실시하는 등 開發「인플레이」의 收束에 注力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施策들은 1965년부터 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經濟開發期間中 製造業部門에 대한 集中的 投資의 結果 工産品 生産能力이 擴大되고 輸出의 急速한 伸張으로 外

〈表-6〉 主要經濟指標¹⁾(62~72년)

	通貨	GNP	都賣物價	消費者物價	輸入	輸入單價	被備者報酬	海外依存度
1962	10.1	2.2	10.7	16.7	37.6	-	36.1	22.6
63	6.3	9.1	30.3	26.6	27.2	-	30.7	21.2
64	16.7	9.6	27.0	19.8	-25.9	1.1	28.1	20.2
65	34.2	5.8	7.7	10.2	12.7	1.8	31.8	25.4
66	29.7	12.7	8.8	15.3	62.0	-2.2	33.0	32.2
67	44.5	6.6	7.5	11.7	34.0	0.9	36.7	36.0
68	44.6	11.3	7.0	11.3	45.5	-0.9	37.5	40.6
69	41.7	13.8	7.6	16.2	24.8	-1.5	38.1	41.4
70	22.1	7.6	9.1	14.4	9.9	3.7	39.5	41.3
71	16.4	9.4	13.2	9.2	3.9	0.4	39.5	44.9
72	45.1	5.8	8.4	9.1	70.5	1.7	39.1	48.8
平均	28.3	8.5	12.5	14.6	27.5	0.6	35.6	34.1

註: 1) 海外依存度を 除外하곤 年間上昇率(%)

資料: 韓國銀行

換事情이 好轉됨에 따라 輸入物量供給이 圓滑해짐으로써 期間中 穀價支援政策에 따른 政府米放出價의 引上과 1967~68년의 凶作으로 穀物價格의 顯著한 上昇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工產品價格安定에 기인하여 1965~72년 중의 都賣物價는 年平均 8.7%의 安定을 示顯하였다.

한편 1·2次經濟開發期間中 비교적 温全한 國際環境 속에서 輸出增大와 高度成長을 體驗하는 過程에서 우리나라의 經濟政策은 輸出主導型 高度成長追求로 急旋回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論理는 우리의 같이 賦存資源이 貧弱한 데다 餘他 後進國에 비해 비교적 높은 教育水準의 豊富한 勞動力을 거의 唯一한 資源으로 가진 나라에서는 海外原資材를 大量 輸入하여 이를 豊富한 勞動을 밑받침으로 加工·組立하여 輸出함으로써 經濟開發을 主導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貿易政策은 比較優位論에 立脚하여 國際價格에 비해 國內生産費가 비싼 商品을 輸入하고 生産費가 상대적으로 低廉한 商品에 特化하여 國益을 圖謀한다는 것이었는데 其實 이는 比較優位論과 絶對優位論을 混同한 것이었다.

이러한 論理에 立脚하여 農畜産業의 特性을 고려하지 않은 채 貨幣生産費의 國際間的 絶對比較를 통해 싸고 豊富한 勞動力을 基礎로 雇傭誘發效果가 큰 工業部門에 集中하여 工產品 生産과 輸出에 傾注함으로써 産業의 高度化를 追求함은 물론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있는 農產品의 輸入代錢을 確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輸出産業에 대한 偏重的 支援政策이 持續됨에 따라 餘他部門의 支援을 스스로 制約하여 基礎部門인 農水産業과 中小企業의 상대적 萎縮을 초래함으로써 地域間, 産業間, 企業間的 生産·所得의 構造的 不均衡을 擴大시켜 成長主導産業과 大企業을 아래로부터 떠받쳐 주어야 할 支援産業인 農水産業과 中小企業과의 相互依存補完關係가 微弱해짐으로써 결국 하나의 統一的 有機體로서의 國民經濟는 外延的인 肥大化에 비해 內的으로 커다란 脆弱性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대에 들어 貿易依存도가 점차로 높아지면서 原資材의 海外依存도는 加重되어 外生的인 「인플레이」의 즉각적인 國內流入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高度成長을 위한 通貨增發의

인 輸出에 대한 過度支援으로 輸出産業은 大型化되었으나 過保護 아래서 體質弱화를 초래함과 아울러 國內에 超過需要壓力을 常存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內需産業 및 農水産業의 萎縮과 이로 인한 生必需品供給의 蹉跌을 가져 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經濟는 國際貿易의 增大와 原資材價格의 安定 등의 好條件에서는 그 脆弱性이 크게 露出되지 않았으나 1972년 穀物波動을 계기로 시작된 國際資源波動이 1973년 1次 「오일 쇼크」로 다시 觸發되어 世界經濟가 景氣沈滯下의 物價上昇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構造的 脆弱性이 露出되었다.

4. 1次 「오일 쇼크」 (1973~75년)

1972년 「배럴」당 2.5「달러」 수준이던 原油價格이 「아라비안 라이트」 基準으로 1974년 末에는 11.5「달러」로 4.6배로 暴騰한 것을 비롯하여 各種 原資材價格이 急騰하자 우리나라 輸入單價指數는 1970~72년 중의 保合勢(3년간 7.1% 上昇)에서 1973~74년 중에는 2배로 騰貴(2년간 115.3% 上昇) 하였다.

이러한 輸入價格上昇은 즉각 國內物價에 波及되어 1973~75년 중에 대부분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GNP 「디플레이터」 上昇率은 期間中 82.5%에 달하였다.

또한 1974년 12월 7일 國際收支改善과 景氣回復을 위한 特別措置에 의해 換率이 實勢에 맞도록 21.8% 引上調整되었다.

이러한 換時勢의 平價切下 또는 國際價格上昇에 따른 原資材의 원貨 輸入價格上昇은 直接的으로 當該 原資材加工産業의 費用上昇을 통하여 國內物價上昇을 誘發하고 이는 다른 關聯産業의 原價上昇을 통하여 다른 製品の 價格을 上昇시키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費用上昇 「인플레이」 下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賃金, 利潤 등 附加價值部門의 均衡回復에 따른 調整過程에서 當該 製品價格은 다시 上昇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74년 12월의 換率引上은 75년 중 都賣物價上昇을 主導하여 年末基準으로 19.6% 上昇을 보였고 이와 같은 輸入價格 上昇과 換率引

〈表-7〉

主要經濟指標推移¹⁾

	通貨	GNP	都賣物價	消費者物價	輸入單價	輸 入	被傭者報酬率	海外依存度
1973	40.6	14.9	15.1	8.5	33.5	70.5	31.2	66.4
74	29.5	8.0	44.6	26.6	55.5	71.3	36.1	71.4
75	25.0	7.1	19.6	26.4	2.9	0.1	38.4	68.6
平均	31.7	10.0	26.4	20.5	30.6	47.3	35.2	68.8

註：1) 海外依存度を 除外하곤 年間上昇率(%)

資料：韓國銀行

上으로 1次「오일 쇼크」期間인 73~75년 중 都賣物價는 年平均 26.4%의 높은 上昇을 보였다.

「오일 쇼크」로 인한 國際資源波動 및 換率引上의 國內物價에 대한 波及은 75년 말로 一段 落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오일 쇼크」期間은 우리 經濟에 쓰라린 敎訓과 몇가지 극복할 과제를 남겼다. 즉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은 우리같이 賦存資源이 貧弱하고 資本蓄積이 적은 나라로서는 高度成長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選擇이라는 데는 充分한 妥當性이 있으나 이 選擇의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追求를 위해서는 推進過程에서 發生하는 副作用을 除去하고 再發의 可能性을 미연에 방지하는 政策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輸出伸張은 그 자체가 經濟成長을 직접적으로 主導함은 물론 前後方 聯關效果를 통해 産業構造를 改編하고 고용을 增大시켜 國內技術의 進歩에 寄與하는 한편 市場規模 擴大를 통한 企業規模의 國際化를 낳는 등 肯定的인 영향을 가져오는 反面 價格競爭力의 유지를 위한 金融稅制上의 過度한 支援이 繼續될 경우 企業體質의 弱화, 金融의 硬直化 및 資源配分の 歪曲 등과 같은 問題點을 초래한다. 또한 輸出增大와 工業化에 따른 投入需要增大가 곧바로 原資材와 資本材의 輸入需要를 誘發함으로써 輸入調整能力이 敝如된 構造의 硬直化를 초래함과 아울러 輸入된 基礎原料를 中間原料로 轉換하는 生産의 迂廻化와 國內에서 附加價值增大가 併行되지 않을 경우 海外依存度는 깊어만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經濟開發의 推進過程에서 經濟構造가 높은 海外依存性을 갖게 됨에 따라 「오일 쇼크」와 같은 國際原資材 波動이 發生할 경우

이를 國內에서 消化하지 못함으로써 國內物價는 물론 經濟成長 및 輸出에 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5. 原資材 安定期間(1976~78년)

75년 下半期 이후 우리나라 經濟는 輸入原資材價格의 安定과 換率固定을 바탕으로 持續的인 海外需要의 增大와 內需伸張에 힘입어 73·74년의 1次 「오일 쇼크」로 인한 景氣沈滯에서 벗어나 79년 초까지 好況局面을 維持하였다.

期間中 高度成長下에 物價安定, 國際收支改善 등이 達成되어 國內的으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急速히 推進되고 對外的으로는 持續的인 輸出入增大로 全世界貿易量의 1% 이상을 占함으로써 國際社會에 잠재적 巨人으로 부각되어 各國의 韓國警戒論까지 나오게 되었다. 年 10.6~15.1%에 달하는 高度成長이 製造業部分의 急速한 成長에 의해 主導됨에 따라 工產品의 物量供給이 增大된 데다가 物資需給 圓滑化를 위한 諸般 對策이 실시되고 工產品에 대한 效率的인 價格規制를 目的으로 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 1976년 制定·實施되어 工產品價格은 安定되었으나 農水產品價格의 全體物價上昇 主導役割이 점차 擴大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같은 農水產品價格 上昇은 持續的인 高度成長의 結果 個人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다른 食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은 肉類, 水産食品 등 高級蛋白質品目과 이의 補完財인 菜蔬, 果實類의 需要가 크게 增加된데다 그간 農水産部門에 대한 支援育成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으로써 生産基盤의 擴充이 需要增加를 따르지 못하였으며 流通構造의 前近代性, 備蓄制度

〈表-8〉

米穀의 生産, 輸入 및 放出 實績(70~80年)

	生産高 (千石)	輸 入		政 府 收 買		政 府 放 出		糧特收支 (百萬圓)
		物量(千石)	金 額 (百萬 \$)	物量(千石)	收 買 價 (80 kg, 圓)	物量(千石)	放 出 價 ¹⁾ (80 kg, 圓)	
1970	28,406	3,757	145.4	2,436	7,000	5,199	6,500	- 36
71	27,356	6,298	150.2	3,418	8,750	8,202	7,700	8,721
72	27,480	4,056	103.0	3,520	9,888	4,090	9,300	19,150
73	29,248	3,035	84.0	3,306	11,377	4,211	9,500	- 65,246
74	30,867	1,427	153.1	5,105	15,760	6,747	13,000	- 120,715
75	32,424	3,341	195.1	5,483	19,500	3,838	16,730	- 207,690
76	36,215	1,092	47.0	7,245	23,200	5,890	16,730	- 131,554
77	41,706	-	-	9,742	26,000	4,210	19,500	- 143,424
78	40,258	-	-	9,413	30,000	8,215	22,420	- 251,506
79	38,645	3,486	163.8	9,032	36,600	11,710	32,000	36,864
80	24,600 ^P	4,028	248.8	3,791	45,750	12,096	44,000	- 173,000 ^P

註：1) 年末基準

資料：農水産部

의 未備 등으로 供給能力이 增大되지 못하여 需給不均衡이 深化된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穀物의 경우 1970년에 「糧穀管理基金」이 制定·施行되면서 食糧의 自給을 위한 二重穀價制가 本格的으로 실시되어 食糧의 自給을 追求함에 따라 糧特指定의 赤字를 累増시켜 每年 政府米放出價格의 引上調整이 不可避하였고 한편으로는 通貨增發의 主要因으로 作用함에 따라 超過需要壓力을 加重시켜 왔다.

결국 76~78년 중의 異例의인 景氣好況과 物價安定은 우리나라 企業의 활발한 中東進出에 따른 外換事情의 好轉, 國際貿易의 增大에 힘입은 輸出伸張과 原油를 비롯한 主要 原資材 價格安定 등 몇가지 基軸要因의 好轉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었다. 國內의으로는 1次 「오일 쇼크」期間中 露되된 脆弱點들이 再發의 可能性을 안은 채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大企業을 중심으로 勞動生産性이 높은-

産業의 顯著한 賃金上昇이 勞動生産性이 낮은 다른 産業의 賃金上昇을 誘發함으로써 同 産業에서는 賃金上昇이 生産性增大의 範圍를 上廻하여 物價上昇 壓力으로 作用하였고 工業化過程에서 農村人口의 大舉 都市에의 移動現象으로 農村人口의 감소와 農業賃金의 顯著한 上昇이 발생하여 農産品價格上昇으로 나타나 종래와는 다른 賃金 「코스트」 上昇에 의한 物價上昇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 2次 「오일 쇼크」 期間(1979~80年)

75~78년 중 安定勢를 유지해 온 세계 石油市場은 78년 下半期 「이란」 사태를 계기로 一時的인 原油供給事情 악화와 이를 이용한 産油國들의 原油價引上, 消費國들의 備蓄競争 등이 相乘作用을 한 결과 第2次 「오일 쇼크」는 시작되었다.

〈表-9〉

主要 經濟 指 標 推 移

(單位：上昇率%)

	通 貨	GNP	都賣物價	消費物價	輸 入	輸入單價	被備者報酬率	海外依存度(%)
1976	30.7	15.1	9.4	9.6	20.6	- 2.0	40.1	71.4
77	40.7	10.3	10.1	11.0	23.2	2.2	42.5	75.0
78	24.9	11.6	12.2	16.4	38.5	5.6	46.1	75.7
平均	32.1	12.3	10.6	12.3	27.4	1.9	42.9	74.0

資料：韓國銀行

79년 들어當初 OPEC의 分期別 引上計劃인 14.5% 上昇이 4월에 앞당겨 실시되고 뒤이어 OPEC 各國의 同一步調마저 무너져 油價의 自由化가 실시되자 原油價格은 78년 말 「배럴」當 \$ 12~13에서 100% 이상 急騰하여 79년 말에는 最低 \$ 24에서 \$ 30까지 價格攪亂狀態가 발생하여 現物市場價格은 \$ 45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OPEC의 油價引上은 資源保有國의 資源民族主義의 물결을 일으켜 原木을 비롯한 原糖, 小麥, 天然 고무 등 國內物價에 影響力이 큰 주요 原資材價格이 續騰함으로써 우리나라 輸入物價는 79년 中 37.8% 大幅上昇하였다.

原資材를 중심으로한 이같은 輸入價格 上昇은 곧바로 國內關聯 工產品價格 上昇을 誘發하였으며 한편 75년 이후 持續된 景氣擴大過程에서 발생된 人件費 등 諸般 原價要因은 企業內部에서 解消되지 못하고 價格引上 要因으로 累積되어 企業收支가 惡化됨에 따라 物價는 年中 強力한 金融緊縮으로 內外需要가 크게 低調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都賣物價 基準으로 23.8%, 消費者物價 基準으로 21.2% 上昇을 보였다.

79년의 物價波動은 80년에 들어 10·26 事態 이후 政局의 不安, 繼續되는 産油國들의 原油價引上 및 減産威脅, 세계적인 日氣不順에 따른 穀物價格上昇 등 經濟的, 經濟外的 要因이 相乘作用함으로써 1次 「오일 쇼크」보다 더 큰 시련을 우리 경제에 안겨 주었다.

原油輸入代金 增大 및 輸出不振을 主因으로 \$ 55억의 經常收支 赤字, 年中 바닥 時勢를 벗어나지 못한 景氣와 44.2%의 都賣物價上昇, 이들의 相互有機的인 結果로 GNP 成長 「마이너스」 5.7% 등 6·25 이후 最惡의 경제 現象들이 나타났다.

具體的인 物價上昇率을 보면 都賣物價는 年末 基準으로 44.2% 上昇하여 74년 이후 最高의 上昇值를 나타냈고 전국 消費者物價도 같은 基準으로 34.6% 上昇함으로써 55년 이후 역시 最高를 記錄하였다.

이같은 物價昂騰을 몇가지 直接的 要因으로 구분하면 첫째로 80년 1월 12일 固定換率에 묶여 있던 換率을 19.8% 引上한데 이어 2월 27일 이후 換率의 流動化를 실시, 元貨와 外國貨幣間의 購買力評價의 平準化를 기한 結果 換率은 持續的으로 上昇하여 年 36%가 暴騰함에 따라 原資材 海外依存度가 높은 工產品을 중심으로 심한 原價壓迫을 받게 되었고, 둘째는 原油를 비롯한 主要原資材 價格上昇이 79년에 이어 繼續된데다 換率上昇이 여기에 加勢하여 石油類, 小麥粉, 雪糖 등 原資材 海外高依存品目의 價格이 大幅 上昇되었고 79년 中에 미처 反映되지 못한 原價要因이 80년 中에 나타남으로써 輸入價格, 換率 등 海外要因에 의한 物價寄與率이 79년과 마찬가지로 70%에 달했던 것이다.

세째는 79年 中 都賣物價基準으로 2.7%의 微騰勢를 보여 物價에 安定的 要因으로 作用했던 農水產品價格이 上半期에는 換率 및 油價引上和 政局不安에 따른 心理的 要因으로 上昇勢를 보인데다가 下半期에는 異狀氣候에 의한 凶作으로 年 45.6%의 上昇을 보인데 主因이 있었다.

79, 80년에 걸친 이러한 높은 物價上昇은 1次 「오일 쇼크」 期間과 發生要因에서는 類似하지만 그 結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發견할 수 있다.

즉 海外로부터 流入된 要因에 의해 高物價, 國際收支赤字幅의 深化라는 點에서는 1次 「오일 쇼크」와 유사하지만 2次 「오일 쇼크」에서는 物價昂騰이 成長의 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表-10>

主要經濟指標推移^D

	通貨	GNP	都賣物價	消費者物價	輸入單價	換率	投資	海外依存度(%)
1979	20.7	6.4	23.8	21.2	22.1	-	9.7	67.3
80	16.3	-5.7	44.2	34.6	16.7	36.3	-14.8	80.5
平均	18.5	0.7	34.0	26.0	19.4	18.2	-2.6	73.9

註：1) 海外依存度를 除外하곤 年間上昇率(%)

資料：韓國銀行

되어 깊은 不況의 늪에서 간단히 突破口를 찾지 어려운 狀況에 몰리게 되었다는 點이다.

Ⅲ. 「인플레이션」의 對策方向

대부분 國民이 거의 全生涯를 「인플레이션」下에 살아 오는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感應基準도 높아져 이제는 年間 10% 정도의 物價上昇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에 족스러울 정도로 物價昂騰은 우리의 生活 속에 定着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物價上昇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經濟內部에서 그 發生原因을 찾기보다는 賦存資源의 부족에 의한 物量供給의 부진에 기인한다는 다분히 운명적인 所以로 혹은 OPEC의 油價引上이라는 不可抗力이나 高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代價로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認識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특히 高度成長의 必要惡이라는 論理는 그 現實的 妥當性を 다른 나라의 經濟開發經驗에서나 현재 全世界的인 「스태그플레이션」에서도 부분적으로 附與받을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高「인플레이션」속에서 60年代 이후 持續적인 高度成長이 達成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成長은 相互補完關係에 있는 것처럼 誤認되어 우리 經濟에 內在된 脆弱性이 捨象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80년에 들어 物價 44.2%, 經常收支 - 55億弗, 成長 - 5.7% 등 魔의 三角狀況에 直面하여 物價와 成長에 關한 上述한 辯明은 그 妥當性의 근거를 상실함과 동시에 우리 經濟內에 이제까지 累積된 脆弱性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中進의 挫折」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은 原油價上昇, 新保護主義, 世界的 不況 등 外生的 國際經濟環境의 急變만으로는 그 說明이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는 性急히 短時間內에 어떤 衝擊 요법으로 物價安定, 景氣浮揚, 國際收支 改善을 도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當面한 物價를 너무 近視眼的으로 파악하여 品目別 行政規制를 강화한다든가 原價要因을 무시한 價格設定을 해서는 자칫 企業을 餓死

시키고 暗市場의 繁盛을 助長하는 結果밖에는 가져 오지 못한다.

物價는 經濟라는 身體의 體溫과 같은 것이다. 身體內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體溫이 변하듯 經濟構造에의 이상은 조그만 衝擊에도 곧 物價 昂騰으로 그 症勢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經濟構造의 體質을 강화하는 方向으로 서서히 追求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過度한 輸出主導型 經濟開發 方式의 再考

60年代 이후 年 20~30%에 이르렀던 輸出伸張이 高度成長의 主役으로 雇傭誘發, 技術蓄積, 産業의 高度化 등에 미친 肯定的 影響을 否認할 수는 없으나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 維持를 위한 金融·稅制面에서의 過度한 支援을 持續한 結果 支援依存型 産業構造와 企業體質이 形成되어 더욱 많은 支援을 要求함에 따라 이제는 政府도 企業도 國民도 다 같이 견디기 힘든 상태에 到達했다는 사실도 否認할 수 없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나라 輸出企業이 비교적 安易하게 低賃金を 武器로 輸入原資材의 單純加工 品目인 纖維類, 木製品, 金屬製品 등에 注力하여 輸出伸張을 꾀하여 왔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대부분의 輸出商品이 勞動集約적이고 所得彈力性이 적은데다가 世界交易上 占有率이 높아 規制對象이 되고 있는 品目이고 보니 物量增加의 限界에 부딪침은 물론 最近의 賃金「코스트」의 上昇으로 低賃金에 의한 價格競爭力의 유지도 힘들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輸入의 경우 原資材 輸入地域과 品目の 偏重 現象이 深化되어 점차 輸入調整能力이 敏如된 構造的 硬直化 現象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向後 輸出增加에 어두운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脈絡에서 우리나라 輸入構造도 原資材와 資本財 輸入이 每年 늘어나 70년에 77.6%에서 75년에는 81.5%, 79년에는 87.5%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産業構造와 輸出構造의 變化過程에서 技術劣位와 素材産業의 落後로 産業構造가 輸入誘發의 變함으로써 國際原資材價格 變動에 대한 國內物價의 防禦力이 점차 衰弱해진

〈表-11〉

用途別輸入構成¹⁾(70~79년)

(單位: 100萬「달러」, %)

	1970		1973		1975		1977		1979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消費財	445.0	22.4	897.9	21.2	1,344.7	18.5	1,347.6	12.5	2,475.7	12.2
穀物	244.8	12.3	444.1	10.5	689.1	9.5	485.7	4.5	769.5	3.8
其他	200.2	10.1	453.8	10.7	655.6	9.0	861.9	8.0	1,706.2	8.4
原資材	850.2	42.9	2,011.9	47.5	3,717.0	51.1	5,971.4	55.2	10,639.1	52.3
原油	125.3	6.3	277.4	6.5	1,271.2	17.5	1,925.6	17.8	3,103.7	15.3
其他	724.9	36.6	1,734.5	41.0	2,445.8	33.6	4,045.8	37.4	7,535.4	37.0
資本財	688.7	34.7	1,330.5	31.4	2,212.7	30.4	3,491.5	32.3	7,223.9	35.5
機械類	589.6	29.7	1,156.7	27.3	1,909.3	26.2	2,907.6	26.9	6,125.0	30.1
其他	99.1	5.0	173.8	4.1	303.4	4.2	583.9	5.4	1,098.9	5.4
總輸入	1,984.0	100.0	4,240.3	100.0	7,274.4	100.0	10,810.5	100.0	20,338.6	100.0

註: 1) ESCAP 貿易統計分類基準임.

資料: 韓國銀行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實狀은 80년 9월 27일 「企業體質強化對策」의 發表內容에서 그 限界의 狀況이 明白히 들어 났는데 우리나라 大企業의 거의 全部를 網羅하는 1,216個의 企業이 企業體質強化措置의 대상이었다.

또한 이들 業體의 銀行貸出과 支給保證額은 우리나라 總與信의 68.4%를 占하는 25兆 8千 4百 12億원에 달했는데도 財務構造를 보면 自己資本率이 25.4%에 不過한 劣惡한 상태에 처해 있어 이제까지 輸出企業에 대한 偏重支援이 얼마나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 준다.

따라서 國內物價 安定은 企業體質強化와 輸出伸張力 회복이 相互不可分의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物價對策은 微視的 觀點보다는 經濟構造의 改善이라는 巨視的 次元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海外 「인플레이」 流入을 減少시키기 위해서는 基礎原資材의 國內調達을 可能한 限 늘리고 이제까지의 輸出支援方向을 中間材와 素材工業의 成長支援으로 돌려 國內生産의 迂迴化를 통해 海外原資材價格上昇의 國內物價에 대한 충격을 緩和함으로써 物價安定과 輸入減少效果를 達成해야 할 것이다.

둘째 賃金抑制을 통한 輸出競爭力 提高方式은

長期的인 政策手段이 되지 못하며 도리어 賃金·物價間의 乖離를 깊게 하여 社會不安의 要素로만 作用할 우려가 크므로 이런 安易한 方法은 正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트」 抑制을 위한 賃金抑制보다는 生産性提高를 위한 科學技術人力의 擴散에 힘써서 技術發達을 통해 輸出商品의 質을 높여 輸出競爭力을 強化시키고 아울러 附加價値의 增大를 추구함으로써 國內賃金 「코스트」의 壓力을 소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長期的인 農畜產品 價格安定을 위한 方案

우리나라 都賣物價上昇率을 보면 70年代 이후 73년과 79년을 除外하고는 農畜產品 價格上昇率이 餘他商品 價格上昇率을 上廻하고 있으며 「오일 쇼크」 以外 期間에는 物價寄與度에 있어서도 全體物價上昇을 主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樣相은 消費者物價의 경우 더욱 顕著하여 農畜產品 중심의 食料品이 70년 이후 全期間을 主導하였다.

이같은 現象은 첫째, 農畜産業이 가지는 産業的 特質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農畜產品은 무엇보다도 土地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는 有機的

<表-12>

70 ~ 80年 物價上昇率 推移

(單位: 年末基準,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都 賣 物 價	總 指 數	9.1	13.2	8.4	15.1	44.6	19.6	9.4	10.1	12.2	23.8	44.2
	食 料 品	12.8	17.7	10.4	8.7	48.0	25.5	14.2	21.1	21.2	7.0	44.9
	食料品以外	7.5	10.7	7.3	18.5	43.2	16.5	7.4	5.4	7.7	33.1	43.8
消 費 者 物 價	總 指 數	14.4	9.2	9.1	8.5	26.6	26.4	9.6	11.0	16.4	21.2	34.6
	食 料 品	19.2	9.6	10.9	11.4	29.5	31.6	11.9	12.3	19.5	13.2	43.1
	食料品以外	10.2	8.4	7.7	5.9	23.2	21.3	7.6	9.8	13.5	28.9	27.4

生産品(산 것을 對象으로 하는 生産品)이기 때문이다.

無機的 生産品인 工産品과는 달리 農畜産業의 機械化는 技術的 制約이 크며 自然條件에 의해 그 成敗가 左右됨으로써 農畜産業의 生産에는 豊凶의 起伏이 크기 마련이고 따라서 價格의 변동이 심한데다가 生産性向上이 工産品에 비해 항상 뒤지게 됨으로써 長期的으로 보면 價格上昇이 工産品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동안 個人所得增大로 인한 食料品 需要增加가 현저한데 비해 主穀뿐만 아니라 肉類, 加工食品, 菜蔬, 果實類의 供給增加가 이를 따르지 못한데서 오는 需給不均衡이 深化되어 價格上昇으로 나타남에 기인하는 것이다. 反面 그동안 經濟開發過程에서 상대적으로 支援과 育成이 소홀해짐으로써 農畜産業은 다른 産業에 비해 比較劣勢에 놓여짐에 따라 離農現象이 激増되었고 이에 따른 農村 일손 부족으로 賃金上昇이 強力한 「코스트」 要因으로 農産品價格上昇을 加重시켰다.

이러한 時點에서 國家의 가장 基礎的인 戰略産業인 農畜産業의 落後狀態에 기인한 農畜産品 價格昂騰을 당장 物價抑制단 微視的 次元에서 低廉한 外國 農産品の 輸入開放으로 對處한다는 安易한 發想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農畜産業은 工業部門과는 달리 일단 한번 生産基盤이 崩壞될 경우 短期的인 再建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短期的인 投資增大로 그 成果를 기대하기 힘든 産業의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向後 世界農畜産品 供給增大가 人口增加 趨勢를 따르지 못할 것이 明若觀

火하고 最近들어 日氣不順에 대한 不吉한 展望은 머지않은 將來에 「오일 쇼크」보다 더 충격적이고 견디기 힘든 「穀物波動」을 豫期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長期的인 農畜産品 價格基盤을 造成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이고 拙速한 反應을 지양하는 대신 약간의 問題點이 야기되더라도 현재 耕地面積의 절대적 制限과 農家構造의 零細性으로 인한 供給上的 制約條件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農地所有限界를 大幅緩和하여 規模의 經濟를 追求하고 農業資本 大型化를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0년이나 20年 앞을 내다보는 長期的인 觀點에서 農畜産業의 産業的 比較劣位를 解消할 수 있는 價格支持가 당분간 繼續되어야 할 것이며 生産性向上을 위한 研究支援과 農民의 實質所得 維持를 위한 諸般措置가 講究되어야 비로소 궁극적인 農畜産品 供給增大와 價格安定이 達成되리라고 본다.

3. 實質的인 獨寡占 規制와 公正去來 秩序確立

自由競爭을 前提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競爭을 통한 優劣勝敗는 經濟力을 集中시켜 이로 인한 巨大한 獨寡占業體의 出現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實效的인 規制裝置가 없을 경우 일단 形成된 獨寡占은 市場의 需給과는 關係없이 一方的으로 生産·出庫調節 및 價格決定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資源分配을 歪曲하고 物價昂騰을 야기함으로써 結局 社會의 커다란 暗적 존재로 成長하는 것이다.

지난 80년 8月初 K.D.I의 「經濟成長과 經濟力의 集中」이란 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 10大財閥의 附加價值總額이 73년에는 國內總生産(GDP)의 5.1%에 그쳐 그해 政府投資機關의 附加價值總額의 59%에 머물렀으나 78년에는 GDP의 10.9%를 차지하여 엄청난 規模로 急增했다고 分析하고 있다. 그리고 73~78년 중 우리나라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9.9%인데 비해 10大財閥에 있어서는 年平均 28%의 成長을 보여 주어 經濟力의 集中이 加速化되었음을 指摘하고 있다. 또한 61년과 77년을 비교하면 製造業體의 實質附加價值는 19倍 增加하였으나 製造業體數는 1.7배 增加에 그쳐 그동안의 生産增大가 새로운 企業體의 出現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既存業體의 規模擴大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지난 80년 8월 18일 國際經濟研究院에서 발표한 資料에 의하면 우리나라 總 1,835個 商品 가운데 獨占型(1社 70% 이상 生産)이 36.4%, 複占型(2社 80% 이상)이 15.2%, 寡占型(3社 50% 이상)이 34.5%로 결국 獨寡占業體가 全體商品의 86.1%를 排他的으로 生産·供給하고 있음이 들어나 上記品目 選定과 去來比重 등에 대한 考慮를 접어 두더라도 우리나라의 獨寡占狀態는 너무 過度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國內市場이 狹小하고 資本蓄積이 貧弱한 상태에서 다수 企業間의 過剩競爭은 現實的으로 技術蓄積과 資本育成에 負의 效果를 가지고 全體國民經濟의 總體的인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獨寡占狀態가 物價上昇과 庶民負擔加重의 主要因으로 作用함은 물론 特惠式的 獨占利益의 보장이 中小企業의 併合에 의한 大企業의 異狀肥大化를 초래하여 오늘날 우리 經濟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을 감안하여 物價安定과 庶民福祉增

進을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實效的인 獨寡占規制法과 이의 報行機關으로서 強力한 權限의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가 時急히 要請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IV. 結 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推移는 45년 이후 이제까지 本質的으로 生産不振과 通貨增發에 의한 超過需要要因이 常存하는 상태에서 換率과 輸入價格動向에 따라 物價上昇의 起伏이 決定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특히 62년 이후 과도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과정에서 部門間의 不均衡이 深化됨으로써 이제는 構造的 脆弱性이 物價上昇의 主要因이 됨은 물론 成長基盤을 弱化시켜 우리 경제는 高物價, 低成長, 國際收支惡化라는 三重苦에 허덕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向後의 우리나라 物價對策은 短期的인 微視的 次元의 外生變數의 解決보다는 長期的인 經濟構造의 根本的 改編에 그 力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從來의 輸出支援體制의 改善, 中間基礎部門의 育成, 農水産業과 中小企業의 支援擴大, 獨寡占規制의 強化 以外에도 「에너지」 多消費型 經濟體質의 改善, 賃金抑制을 唯一한 「코스트」 壓力緩和手段으로 아는 單純한 思考方式의 拂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工業化過程에서 發生하는 地價上昇이 間接的인 物價上昇要因으로 經濟開發에 암적인 存在라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의 經驗에서 政治·社會的 不安으로 인한 企業의 投資意欲低下가 政策手段의 特惠의 運用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순발력을 鈍化시킨다는 것도 指摘하고자 한다.

